

목포시 수산업 경쟁력 키우기 기반 구축 박차

어묵 생산라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등

7개 주력사업 예산 33억원 투입 연내 마무리

목포시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기반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어묵생산라인 장비구축,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생분해성어구 보급,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LED등전기 추진기 지원 등 7개 주력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내 7개 주력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부산 어묵'에 버금가는 '명품 목포

어묵'을 출시하기 위해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명품 어묵 고차가공을 위한 생산장비와 시설 구축에 나선다.

이 사업은 어묵 고차가공 장비와 시설 구축을 통해 '목포어묵'의 대중화 및 고급화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1000만원이 투입돼 오는 11월 완료된다.

특히 시는 별도의 명품 어묵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목포 어묵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어묵 개발과 함께 목포어묵에 대한 지역 특화 브랜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 시는 수산물 가공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

원' 사업을 펼친다.

이는 물김 가공에 필요한 용수 정수 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주력사업 중 가장 많은 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10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품질 마른 김 생산으로 대일본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물 김 세척에 투입되는 용수(수돗물)의 80% 가량을 재사용이 가능해 생산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 시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영세한 가공시설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설비 개선과 위생시설을 확충하는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에는 사업비 6억6700만원이 투입돼 오는 9월까지 완료된다.

특히 시는 전통발효식품 젓갈 보관용기(PE) 현대화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안

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통 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2억6600만원을 들여 위생적인 젓갈용기 7000여개를 구입해 오는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어업인들의 친환경 의식 제고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도 앞장선다. 이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분해되는 잠조기 어망 1600쪽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57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시는 어업인들의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2억9800만원을 들여 '고효율 유류절감장치'와 'LED등, 전기추진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봄꽃 가득한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나비축제장 이달말까지 유료 개방

함평군은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 가 열린 함평엑스포공원을 이달 말까지 유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 폐막한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는 30여만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축제 종료 이후에도 나

비생태관 등 각종 전시관은 이달 말까지 개방한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함평군립미술관

에서는 이현 안백순 선생 기증 기념 '추사 김정희'전, 이달의 청년작가 이두현 작품 전시, 이달의 청년작가 양코르 '내일의 작가'전, 오달 안동숙 전국 미술대

회 수상작품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는 축제 때보다 저렴한 성인 5000원, 청소년·군인 3500원, 어린이·만65세이상 2500원, 유치원생 1500원이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목포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청신호'

1603억 투입...이낙연 총리 내정자 지사 시절 공약 관심 고조

민선 6기 목포시 최대 현안인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정됨에 따라 이 내정자의 공약 사항인 '목포권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권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국립 김 산업 연구소 건립,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국립 수산기자재 진흥원 건립 등 크게 4가지로, 수산식품 가공·유통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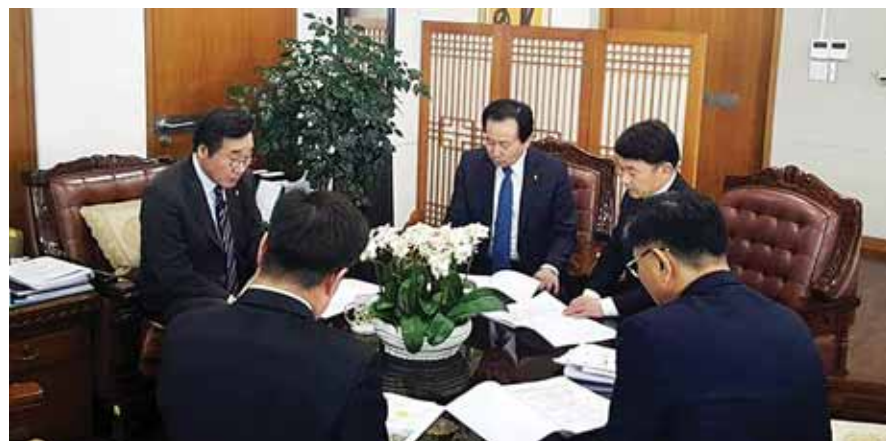
이 사업에는 총 160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목포대양산단 내 2만 3000㎡ 부지에 연면적 7만8541㎡ 규모로 총 1000억원(국비 700억, 지방비 300억)이 소요된다.

주요 시설로는 소규모 가공공장 35실, 중규모 15실, 대규모 10실, 공동 냉동 창고(1302㎡ 규모) 5실이 건립되며, R&D 센터·창립 및 무역지원센터·홍보 전시 판매장·물류 창고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우선 사업으로 선정돼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김 산업 연구소 건립은 김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80억원(국비 100%)이다.

현재 국내 김 산업 규모는 인삼산업보다 크지만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률 시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하고



박홍률 목포시장(가운데)이 지난달 말 해수부 장관 면담에 앞서 목포권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 내정자(당시 전남지사)를 면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목포시 제공>

2018년도 해수부 사업 반영과 기본 실시시설 14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립수산기자재 진흥원 건립 사업은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을 들여 대양산단 내 연면적 8200㎡ 규모로 품질인증센터, 기술지원 컨설팅 센터 정보제공 교류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목포시는 2018년도 정부예산에 기본 실

시설 9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목포에 수산기자재 진흥원이 건립되면 수산기자재 산업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고부가가치화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개발정보 제공·품질 인증 등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다문화학생 동아리 '라이브 뮤지컬 동그라미' 발대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선미)은 "최근 다문화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종합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복지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 '라이브 뮤지컬 동그라미'의 발대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교육복지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다문화학생들의 숨은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자존감 향상을 통

한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동아리 학생 구성과 운영은 목포유달초, 목포상동초, 목포서해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한다.

목포교육지원청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어울림 교육을 위해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캠프, 공연 발표회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만개한 이팝나무...발길이 절로 멈추네



함평군 엽다면 해정마을에 이팝나무가 만개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24/35평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분양 전환 아파트 24평/35평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	-----------------------	----------------------	----------------------

24평형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평형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